

**전일동향**

전일대비 1.10원 하락한 1,454.00원에 마감

7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6.50원 하락한 1,448.6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미-이란 간 종전 합의 기대감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에 상승하며 전일대비 1.10원 하락한 1,454.00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8.60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26.51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48.60	1455.10	1446.50	1454.00	1450.80
엔화	930.22	931.32	924.58	926.51	-	
유로화	1709.28	1711.46	1699.61	1704.68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	-0.94	-3.63	-7.89
결제환율(수입)		-0.51	-2.24	-5.59	-11.24

\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
\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**금일 전망**

호르무즈 해협 공습에...1,45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0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54.00) 대비 5.00원 상승한 1,458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-이란 종전 합의 가능성 약화와 호르무즈 해협 교전으로 리스크 오프 확대에 글로벌 달러 강세 압력 받으며 상승 전망한다. 간밤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(호르무즈 해협 상선들의 항행을 지원하는 작전)을 재개할 수 있다는 소식과 미국이 이란 일부 지역에 공습을 가하고 이란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등 양국의 충돌 뉴스가 전해졌다. 이에 하락하던 국제유가는 상승 반전하여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고, 시장의 위험회피심리 강화되며 금일 글로벌 달러 강세 분위기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 또한, 미 연은 총재들의 인플레이션 경계성 발언으로 장기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분위기에 미 국채금리 역시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 압력 나타나 달러화도 주요 통화 대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어, 이는 금일 달러/원 환율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. 다만,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고점 인식 매도 등에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이다.

<b>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</b>	<b>1455.00 ~ 1465.00 원</b>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b>체크포인트</b>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66986.78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.0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9596.97, -313.62p(-0.63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64.89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7706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